

**연안역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해양경관의
어메니티에 관한 연구**

양 위 주

부경대학교

연안역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해양경관의 어메니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menity of the coastal landscapes for
improving the added values in the coastal area

양위주¹⁾

I. 서론

지방자치 시대 이후 도시의 경쟁력 강화는 지역 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구현되어 왔으며, 관광산업은 이러한 기조 위에 중요한 개발수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왔다. 그러나 유사한 관광매력물 조성을 통한 관광개발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모든 예산의 낭비와 세계 관광시장에서의 우리나라의 대외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연안역에 위치한 도시의 경우, 무리한 관광개발사업이 야기시킨 연안환경의 파괴와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증대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의 연안도시들의 이러한 개발지상주의의 부작용과 환경과 인간의 공동체의식이 고양되면서 보다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연안관리와 개발을 유도하고 보다 쾌적한 연안환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연안역이 더 이상 기존의 수질·대기 등의 물리적인 공해문제들에 대한 수치적인 저감과 완화에 치중한 연안환경 관리정책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과 이용객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을 영위하며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경관을 중요시해야한다는 관점이 대두되고 있음을 말한다.

최근 들어 해양도시의 연안 경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연안역 경관에 대한 어메니티 관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기존의 어메니티 연구가 대부분은 기초연구로서 농촌이나 도심의 물리적 대상을 다루고 있는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연구결과가 육지 중심적 사고로 제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이 바다와 연해있음을 주목하면서 연안역을 중심으로 그 경관이 지는 어메니티를 평가하므로 기존의 시각을 재고해보고자 한다. 특히, 관광학적 관점에서 관광객의 목적지 선택시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경관을 대상으로 그 경관이 지는 어메니티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는 결국 관광지 선택적 속성에 관한 기 연구에서 관광지의 정체성(identity)을 경관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 경관이 그 장소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인자로 인식하여 그 경관을 어메니티적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의 경관적 관점과 연안을 접목시켜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시의 항만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항만경관의 특성과 어메니티와의 관계를 평가하여 향후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의 도시정체성을 제고하고 동북아 관광목적지로 부상하기 위한 도시 관리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부경대학교 경영대학 관광경영학과 교수, e-mail : wjyhang@pknu.ac.kr

1. 어메니티와 도시관리 정책

일본을 중심으로 1980년대 이후 환경의 쾌적성 문제는 「어메니티(Amenity)」라는 개념으로 활성화된 바 있는데, OECD(1978)의 환경위원회는 일본의 환경평가 보고서에서, 일본의 환경정책은 공해방제라는 차원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환경의 질」의 향상이라는 차원에서는 「어메니티」가 결여되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일본은 「환경의 어메니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각층에서 논의를 활성화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환경청에서는 산하에 각종 연구회, 간담회를 만들어 「어메니티」환경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0년대 후반부터 도시를 대상으로 쾌적환경의 조성을 위한 도시 「어메니티」구조의 해석에 관한 연구와 「부산 어메니티 플랜」 등의 계획이 진행되었다. 근래에는 각 자치단체 별로 환경보전형 녹색 플랜의 수립을 도모하여 「어메니티 환경」의 조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어메니티적 해양환경」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분석평가를 통해 지역환경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지역별 「아이덴티티(identity)」가 뚜렷한 연안역의 경관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개발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연안환경 계획·관리 분야에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어메니티 연안환경」 개념이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2.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의 어메니티

지구촌 관광산업은 지난 30년간 연평균 12%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광산업 중에서도 해양관광이 가장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세계적으로 약 7,200만명에 이르는 해양관광인구가 2010년에는 약 1억명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지구촌관광의 가장 큰 변화는 과거의 내륙관광에서 해양관광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유럽과 미국의 관광산업 중 해양관광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관광비중의 약 50%를 넘어서고 있다.

해양관광 활동공간도 해안지역에서 해중, 해상활동으로 공간적 범위가 다원화되어 가고 있으며, 해양관광 활동패턴도 과거의 단순 해양조망형에서 요트, 다이빙 등과 같은 참여·체험형 해양관광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주 5일 근무 확대 등으로 레저시간이 증가하고, 건강 중시 성향 증대와 함께 고속철도 개통 등과 같은 교통관련 인프라의 개선으로 해양관광 자원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져 다양한 해양관광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해양관광 참여인구는 2010년에 가서는 전체 관광인구의 약 31.4% 정도, 2020년에 가서는 전체 관광인구의 약 40.8% 정도가 해양관광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수욕, 바다낚시 등 전통적 해양관광에서 종합적인 해양테마파크 수요증가와 함께 해양관광 활동기간 연장과 관광사업 형태의 다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동적인 해양관광 패턴의 선호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그 환경이 특히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양관광활동을 하는 공간, 즉 장소의 환경적 질에 대한 중요성이 그 매력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어메니티로 대표되는 경관의 질에 대한 보존과 관리에 대한 관심의 증대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해양관광과 어메니티는 여기에서 그 접점을 찾을 수 있다.

3. 부산의 해양관광과 어메니티 제고

부산의 연안환경은 물류중심의 물리적 환경에서 생명있는 어메니티 환경으로 재인식되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어메니티적 관점에서 부산의 항만경관을 대상으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해양관광 메카로서의 발전 잠재력이 풍부함에도 부산의 해양관광 현실은 한정된 하계철 해수욕장 이용을 제외하고는 한국 제1의 해양도시에 부합될 만한 해양관광상품이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부산의 해양관광 발전 저해 요인은 접근성이 양호한 주요 해안역 거의 대부분은 사람중심의 해양관광보다는 수출·입 해상화물 중심의 국가기능인 항만공간 또는 단순어업 공간으로 잠식되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해양관광상품이 들어설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부산의 해양관광개발은 우선 연안환경의 어메니티 제고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부산의 외래관광시장에서 중요한 관광객창출시장인 일본과의 근접성, 동해와 남해의 결절점에 위치한 지정학적 우위성 등 이러한 연안의 지리적 특성은 대부분 항만기능 중심의 도시개발로 인해 관광객에게 엔터테인먼트 제공에만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부산이 관광목적지가 되지 못하고 주유형 관광지로 전략하게끔 방치시켜놓았다. 따라서 연안환경의 어메니티 제고를 통하여 부산이 향후 관광목적지로 거듭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관광객의 관점에서는 어메니티가 관광의 인프라스트럭처에 해당되지만 지역주민에게는 삶의 정신적 복지(wellbeing)과 연계된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여 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의 항만은 동북아물류의 거점도시로서 위상을 지닌 곳으로 기존의 기능적 관점에서 벗어나 어메니티적 관점에서 항만의 경관을 조명하여, 부산의 해양관광 활성화의 관점에서 어메니티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4. 국내외 연구동향

어메니티에 관한 기존 연구가 조경학이나 도시계획 또는 건축학 등 주로 공간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지역학적 관점에서 환경계획의 중요한 계획원리이자 수단으로 연구 되어왔으며, 더불어 실질적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어메니티는 평가 및 지표개발의 영역에서 환경평가의 계량성을 제시하므로 환경보전적 측면 즉 친환경적 용어로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간적 관점에서 주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도심내 자연환경이나 주거환경을 대상으로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대상지의 농업활동을 중심으로 경작지경관(임, 2000), 농작업경관(농림부, 2003), 농경지경관(변, 2003), 농업생산공간의 경관(채 외, 2005) 등이 있다. 그러나 농촌경관의 가치와 시각화에 대한 연구(Kato. et al, 1997)나 송(2003)의 경관관련 제도에 대한 또한 경관계획이나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도 진행되었다(이 외, 2005; 김, 2004; 김, 1997). 농촌의 경우, 농업생산활동이나 경작활동 또는 을 변수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연구대상지를 공간계획적 관점에서 경관의 계획적 가치가 주로 평가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1) 개념과 가치에 관한 연구

어메니티(amenity)라는 말은 ‘환경보전, 종합쾌적성, 청결, 친절, 인격성, 좋은 인간관계, 공생’ 등 번역어만 무려 80여 가지가 된다. 어메니티란 요약컨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쾌적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속가능 발전에서 경제발전, 지역공동체 발전, 생태발전 등 3개 과정의 최적 균형을 찾는 지표가 어메니티라고 볼 수 있다.

총체적인 환경의 질적 개념으로 접근한 연구 중에서 널리 알려진 것은 Ford(1959)의 ‘The right thing in the right place’의 정의로 주거, 따뜻함, 빛, 깨끗한 공기, 가정내의 서비스를 포함시켰다. 또한 Allison(1991)은 환경이나 삶의 질적 향상이 제조업과 산업서비스 활동의 관점

에서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Cullingworth는 영국의 도시 및 전원계획의 기본개념으로 규정하였고, Smith(1974)는 100년간 영국 도시계획의 흐름을 '환경위생, 쾌적함과 생활환경의 미, 보전'의 어메니티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또한 哲(1991)은 도시 및 지역개발에 어메니티 개념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그 외 Galbraith(1971)는 삶의 질 개선을 금전적으로 측정가능한 경제적 생산증대 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이나 어메니티의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부산어메니티플랜(1994)은 이러한 개념과 가치를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에 적용하기 위해 목표와 수단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최초의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크지만 그 당시의 한국적 상황과 부산의 도시적 현실을 감안할 때 다소 진보적 성향의 계획적 특성 때문에 실제 도시행정에 접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도시와 자연생태계의 환경친화성과 지속가능성이 개발의 중요한 철학으로 대두되면서 새롭게 그 계획이 재인식되고 있다.

2) 평가 및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일본에서의 도시개발 목표로서의 도시의 어메니티 환경지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梶(1969)와 根本·井手(1983)는 거주환경에서 녹음의 질과 주민의식과의 관계를 밝혔다. 또한 定井 외(1984)는 주민의식과 도시시설의 정비상황에 대해 살기좋은 지표를 구축하였다. 또한 佐伯 외(1991)는 밀도와 주택규모의 물적지표와 주거환경조사와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모두 주거환경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평가 및 지표가 개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李(1993)는 지역환경평가를 실시하여 어메니티가 개인의 속성, 사회와의 관계, 가치관 등에 영향받고 있음을 입증하여 어메니티 연구의 가능성을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김과 변(1991)이 부산시를 대상으로 도시환경의 어메니티 구조를 해석하고, 김과 임(1992)이 대구시의 레크레이션 공간을 대상으로 어메니티 자원을 평가하였다. 또한 성과 이(1997)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쾌적환경평가 및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와같이 국내외 연구에서의 평가항목 체계를 분석하면 기존의 어메니티 평가 사례에서는 주로 도심의 녹지를 대상으로 환경평가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환경보전이나 자연친화적 측면이 가장 중요하게 연구되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 어메니티에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 개념과 가치에 관한 연구, 둘째, 평가 및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해양도시인 부산 연안의 지형학적 요인을 고려하여 해양환경의 향만을 대상으로 어메니티를 평가하므로 해양관광목적로서의 그 가능성을 어메니티적 관점에서 연구해보고자 한다.

III.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 연구내용

일반적으로 경관이란 오감 중 시신경을 통한 시지각적 관점에서 지각되는 경치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물리적 대상과 인간과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간에게 지각되어진다. 이러한 지각된 경관은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으로 대별될 수 있으며(임, 2000), 부산의 연안경관은 대표적인 인공경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관을 어메니티적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하며, 어메니티적 접근방법에 따라 연구방법을 구분한다.

첫째, 어메니티는 총체적인 환경의 질이다. 따라서 어메니티는 매력적이고 기분 좋다고 느끼는 다양한 환경의 조건이 충족될 때 증진되는 주관적인 만족감의 총량임으로, 관광개발계획

에서도 중요한 계획원리이자 방법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므로 그 측정을 만족도가 될 수 있다.

둘째, 어메니티는 인간이 기분좋다고 느끼는 물리적 환경의 상태이다. 따라서 어메니티는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오감의 감각기관으로 전달되는 기분좋다고 느끼는 물리적 환경의 상태와 관련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측정수단은 어의분석법(Semantic Differential)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의 연안환경에 대한 총체적 환경의 질과 그 연안의 이용자가 느끼는 기분좋은 상태를 평가하므로 그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는 부산 연안역 경관 중 장소별 공간적 특성과 해안경관이 잘 나타나 있는 항만인 북항, 남항, 감천항을 선정하여 연구대상지로 설정하였다. 특히, 대상지의 대표적인 해양경관을 추출하기 위해 사진을 이용하였다(Stamps, 1992,1993a,1993b). 부산 해안경관에 대한 어메니티 평가는 먼저 2차에 걸친 예비조사를 통해 어메니티 평가항목의 조정과 대표적인 해양경관 사진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조사에는 30개의 어메니티 평가항목을 도출하였고, 항만 당 4매의 사진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피험자 집단은 대학생 230명을 대상으로 2006년 4월 19일부터 26까지 7일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피실험자가 7점 등간척도로 측정하였다.

2) 분석 방법

연안역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어메니티에 따른 해양경관의 특성을 유형화하기 위해 측정변수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항만간의 어메니티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여 각 요인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중요도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5.0과 AMOS 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가설

가설 1 : 해양경관의 역동성 요인은 어메니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해양경관의 안정성 요인은 어메니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해양경관의 친숙성 요인은 어메니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통해 해양경관의 구성요인들과 어메니티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항만으로 대표되는 부산의 연안역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어메니티를 통한 해양관광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1)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연안역의 해양경관에 대한 어메니티 요인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은 이론상으로 체계화되거나 정립되지 않은 연구에서 연구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인 목적을 가진 분석방법으로 연구모형에 대한 어떠한 기존의 이론적인 구성이나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요인이나 개념을 추출해낼 수 있다. 즉, 관찰변수들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잠재요인을 평가하거나 주어진 자료의 여러 측면을 탐색하여 자료에 대한 가치 있는 특성과 정보를 얻어서 결과를 요약, 기술하여 의미 있는 해석을 하는 분석을 말한다.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 및 베리맥스 직교회전을 통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요인의 추출 기준은 고유치 1이상, 요인 적재값 0.4이상의 요인 적재값을 보이고 있는 17개 문항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그 결과 해양경관의 어메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수는 3개가 해당되었다.

<표 41> 해양 경관의 어메니티 요인분석 결과

변수명	설문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Cronbach' a
		역동성	안정성	친숙성	
X1	침체된/활기있는	0.714	-0.031	0.316	.846
X3	갑갑한/트인	0.759	0.238	0.092	
X5	지루한/흥미있는	0.499	0.162	0.357	
X19	좁은/넓은	0.818	0.141	0.156	
X20	추한/아름다운	0.649	0.324	0.316	
X21	촌스러운/세련된	0.753	0.211	0.177	
X26	왜소한/웅대한	0.783	0.139	0.090	
X27	단조로운/변화있는	0.755	-0.043	0.038	
X8	불안정적인/안정적인	0.292	0.656	0.262	.823
X9	혼란스러운/평화로운	0.060	0.769	0.129	
X10	위험한/안전한	0.278	0.698	0.132	
X11	무질서한/질서있는	0.296	0.662	-0.069	
X13	시끄러운/평온한	-0.175	0.743	0.049	
X14	초조한/안심되는	0.124	0.675	0.331	
X28	친화력낮은/친화력높은	0.355	0.104	0.687	.628
X29	돌발적인/점진적인	0.165	0.196	0.604	
X30	낯선/친근한	0.073	0.111	0.786	
Eigenvalue		6.408	2.359	1.225	
누적분산값(%)		37.69	51.57	58.77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인 1은 주로 향만 경관에 대한 역동적인 요소들과 관련된 변수들로 Eigen value값이 6.408이며,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1에는 구체적으로 침체된/활기있는 (X_1)와 갑갑한/트인 (X_3), 왜소한/웅대한 (X_{26}), 단조로운/변화있는 (X_{27}) 등의 항목들로 구성되어 “역동성”이라고 요인명을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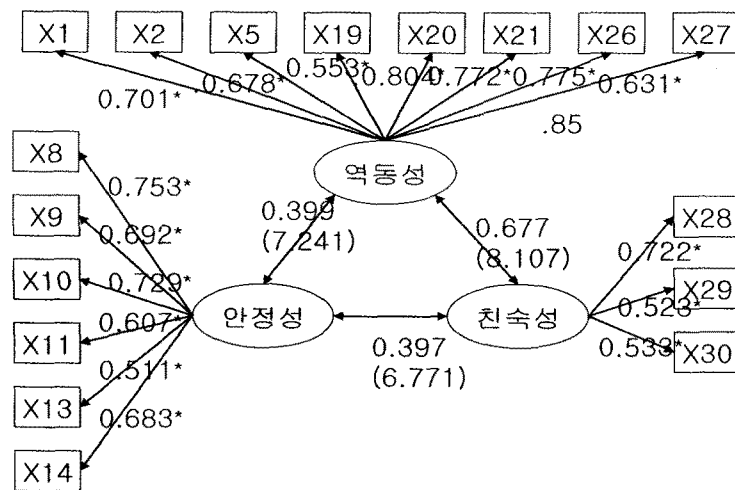
요인 2는 대체적으로 향만 경관에 대한 안정적인 요소들과 관련된 문항으로 Eigen value값이 2.359이며 모두 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요인 2에는 구체적으로 불안정적인/안정적인 (X_8)와 혼란스러운/평화로운 (X_9), 위험한/안전한 (X_{10}), 무질서한/질서있는 (X_{11}), 시끄러운/평온한 (X_{13}), 초조한/안심되는 (X_{14})의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정성”이라고 요인명을 정하였다.

요인 3은 향만 경관에 대한 주로 친숙함과 관련된 요소들로 이루어진 문항으로 Eigen value값이 1.225이며, 모두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3에는 구체적으로 친화력낮은/친화력높은 (X_{28})과 돌발적인/점진적인 (X_{29}), 낯선/친근한 (X_{30})의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친숙성”이라고 요인명을 정하였다.

구성개념들의 타당성(construct validity) 검정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조사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AMOS를 이용한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 하였다. 먼저 구성개념간의 수렴 타당성은 Bagozzi and Yi(1991)가 제안한 방법을 따라 구성 개념과 측정 변수간의 요인 적재량이 유의한지를 검토하였다.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에 대한 평가는 요인적재량과 표준오차의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분석결과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측정항목들과 해당 구성개념을 연결하는 요인적재량이 모두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t > 1.96$)하게 나타나 수렴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구성 개념간의 판별 타당성을 검정하였다. 모형에 포함된 역동성, 안정성, 친숙성의 3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상관계수의 95%신뢰구간[상관계수 $\pm(2 \times$ 표준오차)]에 그 값이 1.0이 포함되지 않아 구성개념들의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이 확인되었다(Anderxon and Gerving 1988).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 적합도는 카이제곱 (107)= 265.652 ($p=.000$), CFI=.946, NNFI=.931, IFI=.946 등으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ollen 1989; Browne and Cudeck 1993). 카이제곱값은 표본의 크기와 모형의 복잡성, 자유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이 표본이 비교적 크고 자유도가 높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지표로 알려진 CFI, NNFI지수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권장된다(Bagozzi and Yi 1988). 이러한 이론적 근거 위에 모형의 부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괄호 안의 값은 C.R값을 의미한다.



*표시는 0.000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는 C.R.값임
 $\chi^2(107)=265.652$ ($p=.000$), CFI=.946, NNFI=.931, IFI=.946

<그림 1> 해양경관의 어메니티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해양 경관의 어메니티 요인에 관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확인된 요인들에 대한 내적 일관성 즉, 구성개념들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해 알파 계수 (Cronbach's 알파)를 통해 분석 하였다.

역동성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측정한 결과 0.846로 나타나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823, 친숙성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는 0.628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보여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세 개 요인의 신뢰성계수들이 0.6을 상회하고 있어서 (Nunnally 1978)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된 역동성, 안정성, 친숙성의 3개 요인들이 항만 경관의 어메니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가설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와 Condition Index를 통해 사용하여 판단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3개의 요인들의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VIF값과 Condition Index가 모두 기준치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R^2 값이 0.537 이고, 조정된 R^2 값이 0.534로 나타났으며, $F=157.457$ 으로 1% 유의수준에서 제시된 회귀모형이 유의하여, 가설 검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요인을 사용한 항만 어메니티에 대한 가설 검증은 다음과 같다. 가설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5% 유의수준과 회귀 계수 값의 부호 즉 가설의 방향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3개의 요인들이 모두 유의수준이 0.000으로 나타났으며, '가설1 항만경관의 역동성 요인은 어메니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항만 경관의 안정성 요인은 어메니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항만 경관의 친숙성 요인은 어메니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모두 채택되었다. 따라서 항만의 어메니티에 역동성, 안정성, 친숙성이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성요인 간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계수에 따르면, 역동성(0.504)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안정성, 친숙성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가설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요인명	표준화된 계수	표준오차	t-value	p-value	다중공선성 검증	
					VIF	Condition Index
역동성	.504	.053	12.519	0.000	1.424	10.059
안정성	.228	.054	6.021	0.000	1.257	11.342
친숙성	.166	.055	4.170	0.000	1.400	12.861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연안역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 해양 경관에 대한 어메니티를 분석을 항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어메니티 평가에서 사용되었던 경관형용사를 SD척도화 하여, 항만 경관의 어메니티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행하였으며, 요인분석으로 도출한 요인들과 어메니티와의 관계를 다중회귀분석방법으로 검

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 경관을 대표하는 시각적 요인은 역동성, 안정성, 친숙성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항, 남항, 감천항 이 세곳 전체 항만의 어메니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역동성, 안정성, 친숙성 세 요인이 모두 유의하게 작용하였으며, 특히, 역동성 요인이 상대적으로 항만 어메니티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항만 경관의 창출 및 관광객을 위한 항만 이미지 조성에 역동성의 요소를 중요시하여 활기차고 상쾌하며 역동적인 이미지를 가지도록 조성하는 것이 이용객의 어메니티에 높은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항만 경관의 시각적 평가에 의한 어메니티 분석 결과는 이용자 및 관광객들이 원하는 어메니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항만 경관을 조성하거나, 항만 지역의 관광 목적지 개발에 있어서 위의 세가지 요인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제언

어메니티에 관한 기존 연구가 조경학이나 도시계획 또는 건축학 등 주로 공간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관점에서 환경계획의 중요한 계획원리이자 수단으로 연구 되어왔으며, 연구결과 실질적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어메니티는 평가 및 지표개발의 영역에서 환경평가의 계량성을 제시하므로 환경보전적 측면 즉 친환경적 용어로서 자리매김하였다.

오늘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모든 도시가 장소마케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결국 그 장소를 구성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평가를 어메니티적 관점에서 시도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관광을 관광지에서의 지역주민과 방문한 관광객과의 제관계(양, 2005)라는 관점에서 그 공간을 바라본다면, 도시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상호 작용을 교류의 장소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 물리적 환경의 역할이 이러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메니티는 이제 관광목적지의 관광기반시설에 해당되며, 높은 어메니티 환경을 갖춘 장소가 매력적인 관광목적지가 됨을 알아야한다.

본 연구는 항만도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부산에서 북항과 남항 그리고 감천항이라는 국가지정 항만과 무역항 그리고 어항을 각각 대표하는 3개의 항만을 대상으로 그 항만이라는 물리적 경관에 대한 어메니티를 분석함으로써 이제 항만을 단순한 기능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데서 나아가 도시민의 삶의 질과 연관시키는 시도로 어메니티의 개념을 도입하여 항만을 분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항만의 기능적 관점에서 벗어나 도시의 중요한 복지적 요소로서 항만에 대한 시각을 교정할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을 삶의 질적 차원에서 부각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어메니티가 재현된 항만은 향후 항만재개발과 관련하여 워터프론트로서의 지역주민에게는 레저공간과 레크레이션 공간으로서, 관광목적지로 인식하고 방문한 관광객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동기를 유발하는 장소로서 인지되어질 것이다.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의 항만은 이제 어메니티적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므로 특히 동북아의 해양관광 목적지와 관문도시, 우리나라의 해양수도를 지향하면서 항만을 중심으로 한 항만에 대한 어메니티의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므로 국제사회에서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김농오, “농촌경관의 개발과 보존방안에 관한 연구”, 목포대 해양환경보고회, 1997, pp.

73-91.

- 김상범, "농촌경관계획수립을 위한 농촌경관계획지표 개발".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4.
- 김승환, 변문기, "쾌적한 도시환경의 창출을 위한 도시 어메니티 구조의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8(4), 1991.
- 서주환, 최현상, 이준근, "농촌경관도입요소의 조작성을 통한 경관평가", 한국산림휴양학회지 6(2), 1991. pp. 1-7.
- 성현찬, 이영준, "쾌적환경평가 및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4(4), 1997.
- 송미령, "외국의 농촌경관보전 관련 제도 및 사업", 농림부. 2003
- 심상도, 지방자치단체의 관광매력 선정을 통한 관광홍보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연구 4(1), 2002. pp. 157-178.
- 양위주. 부산관광학. 대명, 2005.
- 이동근 외2, "농촌경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경관자원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지", 11(2). 2005. pp. 21-35
- 이재준, "공동주택 주거환경의 어메니티 중요인자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6(3), 1998..
- 임승빈,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부산광역시,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부산광역시. 2001.
- 부산광역시, 부산관광종합개발계획, 부산광역시. 1996.
- 부산직할시, 부산어메니티플랜, 부산직할시, 1994.
- 정윤희, 경관의 계절적 시각적 선호도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채혜성 김혜민, "농업생산공간 경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관구성요소 분류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지" 11(3), 2005. pp. 1-9.
- Allison, T., Socioeconomic assessment guidance report: determining the effects of amenity characteristics on business location decisions. Work sponsored by USDE Office of Civilia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1991.
- Andrew, K.T., *The theory of amenity valuations: interactions between land and labor markets(Hedonics)*. Univ. of Colorado at Boulder. Ph.D. Dissertation, 1986.
- Fjellstad, W.J., and Dramstad, W.E., "Patterns of change in two contrasting Norwegian agriculture landscape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45, 1999. pp. 177-191.
- Gunn, C.A., *Tourism planning*, Taylor & Francis : New York. 1988.
- Kato, Y., Yokohari, M., and Brown, R.D., "Integration and visualization of the ecological value of rural landscapes in maintaining the physical environment of Japan",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39, 1997. pp. 69-82.
- Patmore, J.A., *Recreation and resources*, Basil Blackwel: Oxford, England, 1983.
- Smith, D.L., *Amenity and urban planning*. London: Crosby Lockwood Staples, 1974..
- Van der Vaart, J.H.P, "Towards a new rural landscape: consequences of non-agricultural re-use of redundant farm buildings in Friesland",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70, 2005. pp. 143-152.